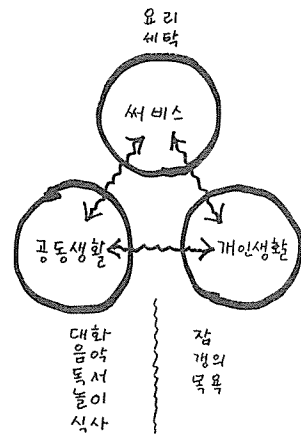


우리의 住宅

金 文 圭

建築設計事務所 하나그룹



● 우리生活에 알맞는 住宅

주택을 지으려는 분과 함께 주택을 계획하면서 늘 느끼는 점은 우리가 西洋式住宅을 과연 올바르게 받아들여 참으로 우리 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편리한 맛에 한복보다 양복을 입듯이 住宅에 있어서도 시원하고 아름답지만 불편하고 非經濟的인 韓式住宅을 버리고 편리하고 經濟的인 西洋式住宅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옷과 달리 住宅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機能要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西洋式住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역시 우리의 住生活을 분석하여 그에 알맞는 土着化된 機能의 西洋式住宅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 生活이 서양사람들과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 안방과 거실

따뜻한 온돌방의 바닥에 앉고, 눕고, 또는 엎드려서 서로 얘기하면서 TV도 보며 저녁 한때를 즐기는 모습은 어느 집에서고 흔히 볼 수 있다.

요즘은 50평 이상되는 고급주택의 평면을 보면 안방 외에 西洋式 부부침실이 따로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안방을 무의식 중에 韓式居室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법 넓은 면적의 西洋式居室은 아직도 응접실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따라서 쓰임새 보다는 장식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

限定된 面積의 經濟的인 住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은 반드시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거실과 안방이 둘 다 넓게 쓰여야

만 한다면 일년에 한두번 있을 잔치 때를 빼놓고는 항상 낭비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이며 이는 낭비된 면적만큼 전국적인 주택난 해결에 지장을 줄 것이다.

우리의 住生活에서, 특히 共同生活部分에서 좋은 점은 取하고 나쁜 점은 버리거나 고쳐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西洋式居室을 우리 生活에 알맞게 설계하여 안방보다 더욱 아늑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 식당과 부엌

잘 설계된 주방과 식당을 마다하고 안방에 상을 차리고 식사하는 모습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우리의 안방은 거실에다 식당·침실까지 겸하였었다.

이러한 습관 때문에 무심코 받아들인 西洋式住宅의 중요한 生活空間이 낭비되고 있다.

가뜩이나 利用도가 적은 西洋式食堂은 주부의 작업대, 아동들의 놀이장소, 책상 등으로 사용하여 그 効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서양사람들의 생각이다.

따로 食堂을 만들지 말든지, 또는 아늑하고 우리 습관에 알맞는 온돌방 식당을 만들든지 할 것은 앞으로의 숙제로 두고두고 연구해 봐야 할 문제이다.

또한 주방이 식당을 겸하는 경우를 보면 더욱더 우리 습관에 알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

우리 음식의 조리에서 생기는 독특한 냄새와 음식저장방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食器 때문인 것이다.

이웃 일본사람들은 어느 정도 식생활을 서양식으로 개량하여 西洋式 주방식당의 개념을 무리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 食生活의 西洋化 없이는 역시 주방과 식당을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변소와 욕실

서양식 주택을 잘 받아들여 土着化한 일본사람들의 住宅을 보면 세면장·욕실·변소, 이 세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이는 서양사람들과 그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양사람들의 욕실은 욕조만 커튼이나 문으로 분리되어 있고 변기나 세면기가 있는 부분에는 카펫이 깔려 있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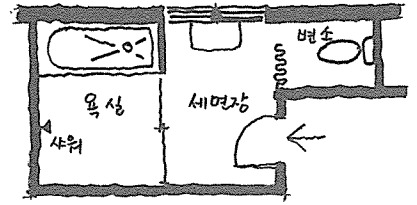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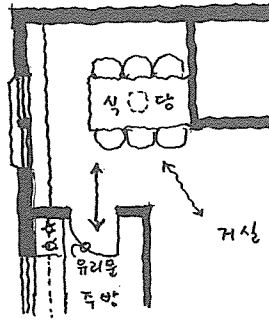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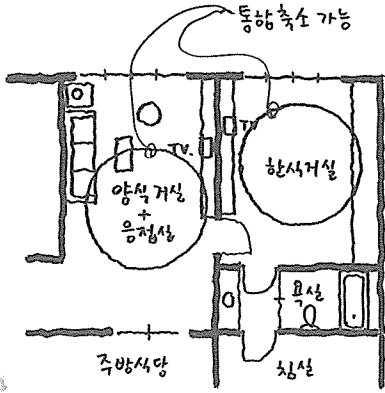
그리고 욕실의 갯수가 많기 때문에, 또 식구가 적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이 없이 쓰는 것을 보았다.

그럼 요즘은 일반화된 우리의 욕실을 살펴보자.

다용도실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욕실에 세탁기까지 놓여져 있고, 더운 물에 목욕하고 나면 습기 때문에 휴지가 물덩어리가 되며 세면기를 두기도 늘 세숫대야를 사용하여 바닥을 더럽히고 있다.

욕조를 임시 물저장소로 쓰는 경우 목욕이나 샤워를 자주 할 수 없고, 아침시간에 아버지가 조간신문을 들고 욕실에 들어가시면 다 큰 딸아이가 발을 동동구르며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 또한 자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여 보면 역시 욕실과 세면장과 변소의 분리는 우리 실정에 알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자기방

서양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이나 식당에서 보내고 자는 시간만을 침실에서 보낸다.

住宅에서의 共同生活과 個人生活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될 수 있으면 함께 모여 있는 시간을 많이 갖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폐쇄적(?)인 습성 때문인지 이상할 정도로 자기방을 고집한다.

가정주부는 자녀들로부터의 도피(?), 혼자만의 명상(?) 때문에, 가정은 자기만의 취미 때문에, 또 성장한 자녀들은 그들대로의 개인적인 생활을 즐기려고 자기방을 찾는다.

물론 과중한 학교수제 때문에 자기만의 공부방을 쓰도록 강요되기도 한다.

어떤 호화주택에는 방마다 욕실과 침실이 딸려 있다고 들은 적도 있는데, 이쯤되면 住宅이 엉뚱하게 기숙사나 호텔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住宅生活을 잘못 이해하고, 洋式住宅을 잘못 받아들인 결과일 것이다.

洋式住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住宅生活을 잘 알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洋式住宅을 설계하려면, 우리의 住宅生活과 가족생활을 분석하여 取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 창고와 가구

집을 지으려는 분들의 말로는 창고가 많고 넓을수록 좋다고 한다.

우리의 이삿짐을 보면 왜 이러한 요

구가 생기는가 알 수 있다.

계속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많은 양의 장농, 옷, 책, 신발, 심지어 언제 또 쓸지 모르는 나무토막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들이 놓아둘 장소를 찾는다.

물론 아끼는 마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매년 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마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서양사람들의 주택에는 대개 세가지 종류의 창고가 있는데 이는 옷창고·식기나 음식창고·연장창고이다. 우리 안방의 장농이 서양사람들의 불박이 받침과 같은 옷창고이고,

대형냉장고·부엌식기장들이 그 다 음이며 현관에 달린 창고가 신발·비옷·우산·장도리 등을 넣어두는 연장창고이다.

우리 住宅의 쓰임새를 해치는 것이 정리되지 않은 쓸데없는 물건들이다.

늘 정리·분류하여 쓸 것만 남기는 것이 住宅의 창고를 알맞게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넓은 창고를 만들기 보다는 적절한 크기의 창고를 밀도있게 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가구 역시 수납장소로서 일종의 창고이다.

즉 장식품이기 전에 그 쓰임새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이삿짐에서 장농·화장대·신발장·찬장 등이 없어질 때야말로 우리의 住宅이 과연 우리 生活에 알맞으면서도 機能的이고, 經濟的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서양 사람들 처럼 이사할 때 옷과

책과 식기만을 가져가는 간편한 이삿짐이 될 수 있도록 건축가와 건축주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 우리의 住宅

洋式住宅이 土着化하는 과정에서 건축가의 노력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住宅의 外觀이나 材料보다도 機能, 그것도 우리에게 알맞는 쓰임새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住宅은 文化的인 성장과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앞장서서 지도 계몽하여 하루 빨리 우리의 住宅을 定着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前年 美國에 사는 친구의 집에서 며칠 지낸적이 있었는데 그 때 그집 주부가 洋式住宅이 다 편리한데 출산 후 며칠은 정말로 견디기 힘들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역시 우리는 우리에게 알맞는 주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돌방의 좋은 점이 있다면 살리고 食生活의 나쁜점이 있다면 고치고, 폐쇄적인 家族生活은 버리고 하여 올바른 住宅生活을 찾고 그에 알맞는 住宅을 갖도록 하여야겠다.

자라는 아이들이 住宅에 의하여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잘못 만들어진 住宅은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지못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는 住宅의 資材나 工法연구에 앞서서 쓰임새에 관한 연구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